

제11강 폴 비릴리오의 「정보과학의 폭탄」 II

(1교시)

비릴리오의 중요한 언명들

가상 이식과 나노 기계의 쾌거, 표준 규격의 부품으로 기계 장치를 교환하듯 인체도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바이오컬쳐, 새로운 초인적 존재들의 교환 가능성, 궁극적으로 삶의 고통의 결정적인 억제에 이르기까지 복제한 육체로 대체함으로써 사람들은 죽음과 동시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39)

특히 TV생중계 덕분에 지구의 긴 고통은 일련의 뉴스 특종처럼 보였다. 따라서 고도의 가벼운 쇼크 상태에 빠진 우리는 그저 사건을 기리고, 우리의 과학적 실패와 기술적, 산업적 과오에 의해 희생된 불행한 희생자들의 숫자만 헤아리는 데 만족했다.(41)

진보는 우리 각자의 장애 전체(시각적, 사회적, 정신 운동적, 감정적, 지적, 성적 장애 등)를 축적하고 응축시키며,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나타나는 과다한 피해와 함께 그 장애를 떠맡는다.(44)

“행동의 자유”를 상실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모든 비판은 거의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순수 기술에서 테크노 문화, 마침내 전체주의적 테크노 숭배의 독단주의로 슬그머니 옮겨갔다.(44)

사람들은 예술이 불법적일 수 없다고 말해야만 하는데도, “예술이 비도덕적일 수 없다.”라고 말하곤 한다.(52)

로스엔젤레스에서 하노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곳곳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감추는 행위를 멈추었다.(54)

전례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은 가장 격렬하고 가장 외설스러운 작품들을 모아 두었던 미술관의 한 전시실이 18세 미만에게는 입장이 금지되었다는 것이다. 소위 문화적 행사와 X등급 쇼 사이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차이들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되었다.(55)

서구의 영토 확장주의자들의 욕망이 고갈되어 버린 지리적 확장으로부터 문화적, 사회적, 도덕적 금기들에 의해 최근까지 탐구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보호받고 있던 인간의 몸으로 이동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60)

사진에 대하여, 발터 벤야민은 경솔하게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유용한 변화를 준비한다. 이 변화에 의해, 인간과 주변 세계는 구석까지 세세히 비추는 조명에 모든 은밀한

모습을 다 내보이며, 또한 서로 무관한 것이 된다.” 이는 정보 기술과 세부의 과다 노출에 완전히 내맡겨진 채 식민화된 세계의 낯설고 외설스러운 모습이다.(62)

“생활공간의 과다한 노출로 모든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불안과 강박 관념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63)

플라이 비전-날 수 있는 비전-은 또한 도난당한 비전이며, 그것으로부터 일상생활의 사각 지대는 사라진다.(64)

“단일 시장의 세계화”는 모든 활동의 과다 노출을 요구하고,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경쟁까지도 필요로 한다.(65)

인터넷상에서 테러리즘의 유혹은 언제나 계속된다. 왜냐하면 처벌받지 않고도 쉽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67)

새로운 전자 바벨탑은 언어들의 과잉이 아니라 언어들의 사라짐 때문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 오늘날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순간적인 영상 앞에서 말(언어)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76)

이제부터는 당신이 아무리 싫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다. 사람들은 좋다고 들을 테니까.(80)

1982년의 포클랜드전이나 1991년의 걸프전 같은 초고속 충돌도 기억하자. 이것들을 전쟁 게임, 즉 이미지 전쟁이라고들 했다. 그러나 그보다는 현실과 가상 사이의 형이상학적 충돌이었다.(94)

20세기 전반부터, 비톨드 고프로비치와 많은 동시대인들은 현대성의 기호가 성장이나 진보가 아니라 그와 반대로 성장에 대한 거부였다는 점을 주목했다.(100)

시장과 대량 생산의 일반적인 경향들은 이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산업화에서 탈산업화로, 현실에서 가상으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옮겨가면서 미성숙 사회의 희망을 성취할 것이다.(100)

츠바이크가 주장했듯이, 구세대들은 순진하게도 과학 기술적 진보와 도덕적 진보를 혼동했다 할지라도, (인간 행위의 목적에 대한 이론으로서) 모든 문화와 도덕을 폐기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기술은 필연적으로 홀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미래 없는 인류를 그 자리에 남겨두면서 그리고 영원히 미숙한 상태를 보이면서 말이다.(105)

보통의 미국인들은 키 큰 아이들인가?(107)

1990년대에 소련 진영의 이데올로기 붕괴 이후로, 미국의 경우 모든 문화는 그들 고유의 예술 활동의 일부를 이루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식민주의 인류학의 일부를 이룬다는 것을 기

억해야 할 것이다.(108)

섹스는 특별한 장난감 같은 것(109)

모든 정치 혁명은 극적이지만, 예상되는 기술 혁명은 극적이라기보다 지식의 비극, 즉 개인적, 집단적 지식의 바벨탑에 필적할 만한 대혼란이다. / 이슥의 말처럼, 인터넷은 최고인 동시에 최악의 것이다. 그것은 끝없는 혹은 거의 끝없는 통신의 발전이며, 가상의 항해를 하고 있는 타이타닉호가 조만간에 빙산에 부딪히는 재난과 같다. (...) 그것은 일종의 전략적 통신 기술 체계인데, 세계화의 실현과 동시에 일어날 연쇄 반응의 피해라는 체계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111)

실시간 속에서 작용하거나 상호 작용하는, 사이버네틱스 텔레커뮤니케이션 혁명의 관계자들은 리듬, 즉 기술의 속도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속도는 사회와 지방의 현지 시간이 지나는 역사적 중요성을 지배한다. 이것은 국가의 역사보다는 보편적 시간 정치의 추상화에 속하는 세계 시간의 절대적인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다.(112-113)

인터넷은 (걸프전 이후) 개별적으로는 어느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면서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끄는 치밀하게 계획된 산물을 위한 최초의 세계적 광고를 시작케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아닐까.(114)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5백만 대의 생중계 카메라와, 컴퓨터 앞에서 그것들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수백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최초의 시각적 공황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그때 텔레비전은 세계의 일반화된 원격 감시에 자리를 내 주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금융 시장의 놀랄만한 가상적 거품은 집단적 상상의 시각적 거품에 자리를 내 주게 될 것이며, 이 시각적 거품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자신이 50년대부터 예고한 정보과학의 폭탄이 폭발하는 필연적인 위험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116)

(2교시)

증기기관, 내연기관, 전기 기관처럼 “에너지에 기초한” 가속화 시대 다음으로, 최신의 모든 기관(엔진)들 -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논리 추론” 기관, 가상공간의 “현실” 기관, 인터넷 검색 엔진의 “정보과학에 기초한” 가속화 시대가 온다.(124)

사이버-광학은 유럽의 근대성에서 생겨난 과거의 미학이나 서구민주주의의 윤리학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125)

사실상, 예전처럼 통신 수단의 국지적 속도가 아니라 원거리 통신의 세계적 속도를 획득함으로써 우리는 타성과 운동의 불임성을 향해 나아간다.(126)

우리가 속도를 높일 때마다, 우리는 반작용하는 힘을 위해 작용하는 힘을 상실하면서 작용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상호 작용이라고 이름 붙인 것보다 흥미를 끌지 못하는 어떤 것이다.(127)

세계는 막다른 골목이며, 밀실 공포증은 불안스러운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의 형이상학적 희망은 점점 사그라지고, 육체적 해방에 대한 우리의 욕망도 시들해졌다.(135)

독점적 성격을 가진 궁극적 형태인 사이버 세계는 사이버네틱스 식민주의의 팽창된 형태에 다름 아니다.(138)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139)

자질 없는 인간, 새로운 시대를 모르는 인간은 좁은 지구를 엄청난 수로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 사라져버린 “미개인”처럼 인류의 최후의 모델인 변형 인간에게 자리를 넘겨준다.(140)

인간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울타리, 즉 세계의 끝이다.(141)

오늘날 정보 전쟁이 예고하는 세계 전쟁은 몰살보다는 오히려 멸종의 위협을 초래하는 과학적 극단화에 근거를 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전자 폭탄과 정보과학의 폭탄은 단일 “무기 체계”만을 구성하기 때문에 예전에 핵폭탄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주민이나 인류가 아니라 개별화된 모든 삶의 원칙 자체를 위협하는 과학적 극단화에 근거를 둘 것이다.(143)

메시지와 영상을 전달하는 방송의 한계-속도는 그 내용과는 관계없이 정보 그 자체이다. 이러한 점에서 마셜 맥루언의 유명한 표현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메시지는 미디어가 아니라 미디어의 빠른 속도이다.”(144)

상호 작용, 즉각성, 편재성은 바로 실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송신과 수신 of 진짜 메시지다.(146)

옛날의 전제주의적 전쟁에서는 양적인 것, 즉 핵폭탄의 질량과 힘이 지배했지만, 미래의 세계 전쟁에서는 정보과학의 폭탄에 힘입어 질적인 것이 지구 물리학적 범위와 인구 규모를 압도할 것이다.(147)

지리적-국지적인 차원에서 탈지리적-전지구적 차원으로의 이동

비릴리오의 글쓰기가 갖는 최대한의 미덕은 그 나름대로 근본적인 개념들을 주조해 내어 전체 상황을 알기 쉽게 정돈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 제시하는 개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대립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마치 암세포가 분열하듯이 여러 영역을 넘나들면서 못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단 그 개념 쌍들을 나열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지적/세계적,
역사의 종말/지리의 종말,
영토 확장주의/인간 몸으로의 확장,
정치적/메타 정치적,
국지적인 도시/세계적 메타 시티,
태양/인조태양,
물질-시간/빛-시간,
심층의 시간/피상적 시간,
태양에 의한 하루/위조된 하루,
현지 시간의 하루/세계적 하루,
현지 시간/세계 시간,
국가의 역사/보편적 시간 정치의 추상화에 속하는 세계 시간의 절대적인 우위,
영토적 근접성/시각적 연속성,
지리적 지평선/대체 지평선(인공 지평선),
공간의 3차원적 입체성/원거리적인 사건의 4차원적 입체성,
공간/시간,
질량/에너지/정보,
현실 투시법(원근법)/실시간 투시법(원근법),
물질적이고 기하학적인 입체감/비물질적이고 전자적인 입체감,
국지적 지각/가속화되는 지각,
실제현실/가상현실,
은폐(어두움, 불투명)/노출(밝음, 투명),
부와 부의 축적/속도와 속도의 집중,
물질적인 제한된 육체/대체할 수 있는 육체,
성찰/충동,
필연적인 죽음/사이버네틱스의 영원성,
성숙함/미숙함,
문화의 독자성/문화의 서비스화,
텔레비전/텔레-비전(플라이 비전),
물건 거래/시선 거래,
세계 시장/세계의 지각 시장,
정신적인 아날로그 방식/도구적인 디지털 방식,
아날로그 방식의 정보 경쟁/디지털적인 기호들의 경쟁,

직접 조명/간접 조명,
국지적인 광학(현실적 광학)/세계적인 광학(사이버 광학),

핵폭탄/정보과학의 폭탄,
폭격전/메일-폭격전,
감금의 사회/통제의 사회,
언어의 과잉/언어의 소실,
부드러운 것(말)/딱딱한 것(이미지),
초영역성/초시간성,
대상적 복제/형이상학적 복제,
성장과 진보/성장에 대한 거부,
책임성/자동성,
성찰적 민주주의/자동 민주주의(반사 민주주의),
개별적 행동의 합리성/전체적 비합리성,
아날로그적 유사성/디지털적 신빙성,
이동과 운동의 작용/상호작용,
태양에 의한 낮밤을 교체하는 빛/속도의 빛,
과거-현재-미래/끝없는 현재(계속되는 현재),
역사적 연속성의 깊이/즉각성의 입체감,
구체적 허구/불연속적인 허구,
극적 표현/몸의 과도한 융합,
방사능-에너지/상호작용-정보,
에너지에 기초한 가속화/정보과학에 기초한 가속화,
자연 선택/인위 선택,
자연 인간/변형 인간,
거시물리적 엑조티시즘(exotisme)/미시 물리적 엔도티시즘(endotisme),
천체 물리학/생물 물리학,
작용-역사성-국지성/상호작용-즉각성-편재성,
전체주의적 전쟁에서의 양적인 것(핵폭탄의 질량과 힘)/미래의 세계 전쟁(정보과학의 폭탄)
등.